

목 차

1. 머리말
2. 上摹里式土器 時期
3. 郭支里式土器 時期
4. 高內里式土器 時期
5. 맺음말

濟州島 上古社會의 韓半島와의 海上交流

이 청 규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1. 머리말

제주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이지만 바다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 사람이나 物資가 이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新石器時代 이른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交流가 이루어지고 일정한 發展過程을 보여주고 있다(강창화 2006). 그러한 교류의 變遷過程에 대하여 고고학적 자료인 가시적인 물자 혹은 유물의 이동이나 流通을 근거로 교류의 과정을 살피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교류의 대상 물품은 확인되더라도 그 루트는 물론 교류수단이나 방식, 나아가 교류의 主體와 그 文化的 脈絡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더군다나 제주도에서 그 교류와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도 않았고, 가까운 장래에 그럴 전망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나마 전시기에 걸쳐 꾸준히 수집되는 土器資料를 근거로 제한적이거나 논의하는 것이다.

제주도와 한반도 남해안의 교류 변천과정에 대한 가설을 무리하게나마 제시한다면 그 초보적인 단계는 일정한 거점이 없이 이루어지는 漂流性 航海이며, 航海技術과 交流體系가 발전하면서 일정한 거점을 기반으로 정기적이고 상호 왕래하는 횡수와 규모 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하겠다. 교류의 방식을 나누어 보면 單純移住에서부터, 物物交換 등의 互惠인 교류, 전문 상인에 의한 상업적인 교류, ‘國’의 首長級에 의한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교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다루고자하는 시간적 범위는 대체로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國>의 複合社會로 발전한 기원전 1천년기 靑銅器時代부터 기원후 1천년 南北國時代에 걸치는 2천년간이다. 제주도의 경우 토기를 표지로 하여 上摹里式土器, 郭支里式土器, 高內里式土器 時期로 구분되며 본 발표에서도 이 틀을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이청규 1995).

2. 上摹里式土器 時期

상모리식토기(이청규 1987)는 南韓地域에서 유행한 이른바 欣岩里式土器를 標識로 한 토기군으로

상모리유적의 발굴성과를 토대로 기원전 8~7세기경의 1기(流入段階), 7~5세기경의 2기(濟州島式의 發展段階), 그리고 4~3세기경의 3기(消滅段階)로 편년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와의 交流 據點은 한반도 남해안으로서 전남 동부에서 경남 서부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이를 입증하는 표지적인 고고학적 증거로서 제주도 대정읍 上幕里遺蹟과 남강유역의 旌州 大坪里유적이다. 양 지역에서 함께 확인되는 대표적인 토기형식은 突帶文土器, 二重口緣과 孔列, 短斜線이 장식된 혼암리식토기가 있다(제주대학교 박물관 1990; 고민정 2003).

돌대문토기는 진주 남강유역에서 圍石式爐址가 설치된 長方形住居址에서 다른 형식의 토기와 공반되지 않는 이른 예가 있어 無文土器 早期에 해당된다고 주장되지만(안재호 2006) 늦은 것은 제주도 처럼 혼암리식토기와 공반하는 예도 있다. 남한에서는 可樂洞式土器와 혼암리식토기를 별도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지만, 진주 대평리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 그리고 제주도 상모리 1식 단계에서 공반되고 있는 것이다(이청규 1995).

이처럼 상모리식토기 1단계는 태도로 보아 한반도산으로서 남해안에서 搬入되는 단계로 추정된다. 반입된 토기가 한두 器種에 그친 것이 아니고 鉢形, 壺形, 단지 등 여러 기종과 여러 형식을 포함하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남해안에서 주민이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주와 남해안 각각 일정지점을 거점으로 반복적인 遠距離 航海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은 표류성 항해로 인한 단순 이주가 아니라 초보적이거나 組織的이고 定期的으로 이루어진 相互訪問 交流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하여 생활에 필요한 韓半島產 磨製石斧, 石劍, 石鏃 등 生産道具의 수입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제주도 海產物 등의 特產物이 그 댓가로 물물교환이 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3. 郭支里式土器 時期

곽지리식토기 시기는 최근에 三陽洞, 外都洞遺蹟 등의 발굴성과에 힘입어 그 이른 1단계는 三陽洞式土器, 그 다음 2단계는 外都洞式土器, 3단계는 郭支里式土器 단계로 세분된다(김경주 2007). 1단계의 上限은 石劍, 有溝石斧, 石鏃 등으로 보아 기원전 3세기경, 下限은 中國製 玉環, 青銅鏃 등으로 보아 기원전후한 시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단계는 용담동 무덤에서 鐵製長劍과 扁平灣入 화살촉 등의 鐵器, 외도동 집자리 등의 타날무늬 회색 경질도기의 공반으로 보아 기원후 2~3세기에 해당한다. 또한 3단계는 그 이후 곽지리 등 유적에서 타날무늬 회색경질도기의 공반으로 보아 기원 3~4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이 단계에 한반도 남부와의 교류를 살핌에 있어 중요한 것은 1단계 혹은 그 이전에

1) 본고에서는 최근의 발굴조사 성과를 반영하여 추정연대를 다소 조정하였다.

松菊里型住居址와 송국리식 外反口緣土器群의 流入에 관련된 것이다. 앞서 혼암리식토기문화 다음에 송국리유형 문화의 유입과 전파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김승옥 2006). 토기, 석기, 주거지 등의 갖춤새 전체의 松菊里類型 문화 전파가 인구이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에도 인구의 새로운 유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남해안지역에 송국리유형의 문화가 확산될 때 제주도에도 그 유입이 산발적이고 소규모적으로는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西歸浦市 大浦洞 동굴유적에서 출토한 松菊里型土器와 磨製石劍 세트이다(국립제주박물관 2001). 문제는 대규모의 인구유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어떠한 배경으로 인해 발생하였는가인데, 지금까지 제주도 도처에서 이루어진 발굴성과로 미루어 볼 때 삼양동식의 선형 토기와 송국리식 원형집자리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기원전 3세기 이전을 크게 올라가기 어렵다(김경주 2009).

그 무렵에 대규모 유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流入動因으로는 粘土帶土器와 細形銅劍 文化의 擴散에 의한 새로운 外來文化의 압력 때문인지, 松菊里文化의 자체 확산인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송국리유형 문화의 內在的인 膨脹과 새로운 점토대토기집단의 외래적 압박이 함께 작용하여 제주도로의 인구 유입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한편 제주도 서북쪽과 서남쪽 일대 해안 全域에 걸쳐 외반구연호형토기와 원형집자리 유적이 크게 번성한다²⁾. 하지만 토기는 전형적인 송국리식과 다소 차이가 나지만 집자리 양식은 송국리식 집자리 그 자체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자연적인 인구증가가 이 단계에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그러면서 단위마을의 규모도 커지고 마을간 여러 방면에서 느슨하나마 位階的인 體系가 설정되면서 제주도 북부를 거점으로 한 한반도와의 왕래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왕래교류는 생활도구에서부터 威勢品에 이르기까지 널리 걸쳐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육지산 물품으로 灰色陶器를 비롯한 石器, 鐵器 등의 생업도구를 비롯하여 靑銅器, 玉製品 등의 위세품과 漢代貨幣(이청규·강창화 1994)도 있다.

회색도기(이성주 2000)는 1단계 후반부터 軟質陶器가 유입되기 시작하며 2~3단계에는 점차 경질도기의 수량이 증가하는데 기종은 대체로 단지형이 주로 수입된다(김경주 2009). 그것은 다음 시기에 수입된 灰色硬質陶器가 瓶, 壺 등의 여러 기종에 걸치는 것(강창화 1994)과 차이가 나며 그 수입량도 적은 편이다. 다음 시기에도 그렇지만 제주도 현지에서 다량 제작되고 다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赤褐色硬質土器이고 저장용 등의 용기로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회색도기를 수입하는 것이다(이청규 1995).

이러한 회색도기 물품의 유입은 아직 물물교환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들 증거를 통하

2) 최근 제주지역의 대규모 마을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삼양동유적, 화순리유적, 하귀리유적, 예례동유적 등이 있다.

여 專門的인 集團 혹은 個人에 의해 제주해협을 오고가며 물자를 수입하거나 수출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유통시스템을 ‘국’의 엘리트가 관장하고 지원하였을 것이나, 엘리트가 발달한 政治組織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한 정치적인 성격을 크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여하튼 그 교류의 거점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호남지역의 海南郡谷里와 영남지역의 泗川 勒島 등의 남해안 주요 교통로임을 濟州島産 土器를 통해서 알 수 있다.

新의 王莽 때 화폐가 다른 지점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만 濟州 山地港을 비롯하여 舊左邑 終達里, 涯月邑 郭支里 등 제주도 북부의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대외 海上交流 據點에서 확인되는 현상이 주목된다. 이들 지점은 또한 큰 마을유적이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앞서 남해안의 두 지점은 각각 계절에 따른 해류와 바람의 방향과 관련하여 상호 왕래하는 중요거점일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3세기 이전 州胡관련 기사가 제주도와 남해안과의 경제적인 교역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앞서 제시된 바와 같다. 이들 外來物品을 구입할 때 한대화폐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지만 전면적으로 그리고 제주도 대내적으로 통용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 高內里式土器 時期

이 시기는 문헌기록을 통해서 6~7세기 百濟와의 通交段階와 다음 7~9세기 新羅와의 통교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고고학적 자료로서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文獻記錄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耽羅’라는 小國에 國主가 등장하고 주변 大國과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음이 확인된다(진영일 1994; 이청규 1995). 이처럼 문헌기록으로 확인된 정치적 교류를 고고학적 증거로 설명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주도에서 이러한 교류를 입증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는 절대 부족하다. 주변과 중심의 地域集團 혹은 소국과 대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한반도의 백제, 신라, 가야 영역에서는 기원 4~5세기경 고고학적 관점에서 分與 혹은 輝與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정설화되어 있다(김용성 1997, 이희준 1998). 그러나 한반도에서 그러한 고고학적 증거로 제시된 분묘나 副葬遺物 자료 특히 위세품적 성격을 지닌 金銅冠裝飾이나 綉帶 등의 금은제품은 제주도에서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금공제품 이외에도 영남의 신라·가야지역에서는 일정양식의 회색도기의 보급을 정치적인 맥락에서 間接支配와 관련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색도기의 생산은 물론 그 普及體系가 정치적인 맥락에서 결정되고 國家에서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것은 회색도기의 생산에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갖춘 장인이 동원되어야 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용되기 때문이다.

영남지역의 경우 간접지배이든 그 외의 방식으로든 일단 확립된 네트워크로 회색도기의 다양한 기종이 망라되어 보급된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실생활에 사용되는 용기로서 그 기종과 양은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며 그 대부분은 제주도 현지에서 생산된 적갈색경질토기인 고내리식토기이다(이상미 2001, 제주대학교박물관 2008). 회색도기는 제작기술의 전파에 의해 보급되는 것이 아니고 물품 그자체가 원거리를 통해서 반입되는 점이 또한 남한지역과 다르다. 따라서 5세기 이후의 영남지역 각 소국에서 도기보급 교류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주도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

제주도에서는 도기의 생산을 시도하는 대신 남해안의 가마에서 생산된 도기를 수입해 오는 것이며 그것은 일종의 제주도 必需 戰略物品으로 그 수입품은 일반 組織 構成員에게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엘리트층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에 생산되지 못하면서 도내의 수요가 많은 물자에 대한 해상무역권은 당연히 제주도 혹은 耽羅國의 지배 엘리트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무역권을 소유하고 장악할 수 있는 권위적인 조직체계가 이 시기에는 성립되었다고 보여진다.

주지하다시피 원거리 해상무역 단계의 경우 제주시를 주요 거점으로 한다는 점은 회색도기가 다량 폐기 혹은 매립된 濟州市 龍潭洞 祭祀遺蹟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 유적에서는 제주도의 다른 생활유적들에서 적갈색경질의 고내리식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과 달리 統一新羅의 회색도기가 대부분이다(제주대학교박물관 1993; 강창화 1994; 이청규 1995). 또한 최근 구좌읍 김녕리 용천동굴 내에서 출토된 臺附長頸甕, 廣肩甕³⁾ 등 회색도기(제주특별자치도 2009)가 祭儀用일 가능성이 높아 동 회색도기 기종이 전략적이고 상징적으로 활용되는 물품이라는 사실과 맥락을 같이 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확보된 고고학자료를 통해서 대외 해상 교류의 對象物品과 그 지리적 거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交流의 主體와 目的, 方式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제기된 교류의 臆測 假設은 토기를 주요 지표로 하였던 바 그 자료를 둘러싼 교류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면 그 생산방식, 용도와 폐기매립과정 그리고 시기 및 분포와 관련한 고고학적 정보가 치밀하게 조사 수집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모리식토기의 늦은 단계와 광지리식토기의 이른 단계 그리고 광지리식토기의 늦은 단계와 고내리식토기의 이른 단계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절대연대상으로는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경 송국리식토기와 점토대토기 그리고 기원 3세기와 기원 6세기경에 마한·백제 혹은 가야 회색도기의 유입과정과 관련된 토기자료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조

3) 용천동굴에서 출토된 대부장경병은 이중원문과 밀집삼각침선문, 수직선문, 파상문으로 구성된 점으로 이루어진 7세기말·8세기말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당연한 지적이지만 동 단계가 제주도 상고사회의 지속적인 변천과정을 설명하는데 밝혀야 할 핵심고리이기 때문인 바, 제주도 유적의 현지 발굴조사를 함에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주제이다.

- 康昌和, 1994, 「統一新羅土器의 變遷에 對한 研究」,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康昌和, 2006, 「濟州 高山里 新石器文化 研究」, 嶺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高旻廷, 2003, 「南江流域 無文土器文化의 變遷」,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국립제주박물관, 2001, 『濟州의 歷史와 文化』, 통천문화사.
- 국립제주박물관, 2007, 『제주세무서 직원사택 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제주박물관, 2009, 『섬, 흙, 기억의 고리-지난 10년간의 발굴 기록-』.
- 金慶柱, 2005, 「耽羅成立期 聚落의 形成과 變遷」, 『湖南考古學報』22號.
- 金慶柱, 2007, 「三陽洞式土器의 始原에 對한 考察-外反口緣土器를 中心으로-」, 『石心鄭永和 教授 停年退任紀念 天馬考古學論叢』.
- 김경주, 2009, 「고고학으로 본 탐라」, 『섬, 흙, 기억의 고리-지난 10년간의 발굴 기록-』.
- 김승욱,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60집.
- 金龍星, 1997, 「大邱·慶山地域 高塚古墳의 研究」, 嶺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安在浩, 2006, 『靑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李相美, 2001, 「濟州島 高內里式土器 研究」,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李盛周, 1998, 『新羅·伽倻社會의 起源과 成長』, 學研文化社.
- 李清圭, 1987, 「濟州島 上摹里土器에 대한 一考察」,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 李清圭, 1995, 『濟州島 考古學研究』, 學研文化社.
- 李清圭·康昌和, 1994, 「제주도 출토 漢代 화폐유물의 한 例」, 『韓國上古史學報』17.
- 李熙濬, 1998,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濟州大學校博物館, 1986, 『濟州島遺蹟』.
- 濟州大學校博物館, 1989, 『龍潭洞古墳』.
- 濟州大學校博物館, 1990, 『上摹里遺蹟』.
- 濟州大學校博物館, 1993, 『濟州市 龍潭洞遺蹟』.
- 제주대학교 박물관, 2001, 『제주 삼양동유적-Ⅱ·Ⅲ지구』.
- 제주대학교 박물관, 2002, 『제주 삼양동유적-Ⅰ·Ⅴ지구』.
- 濟州大學校博物館, 2008, 『濟州 高內里遺蹟』.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9, 「예래동유적(Ⅰ구역)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집」.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제주시 외도동유적』.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 『제주 하모리유적』.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제주 외도동유적Ⅱ』.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濟州 和順里遺蹟』.
- 제주특별자치도, 2009, 『용천동굴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 秦榮壹, 1994,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形成 考」, 『濟州島史研究』3.